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부모의 경제적 지지 철회에 대한
지각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2014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조 민 지

부모의 경제적지지 철회에 대한
지각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창 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조 민 지

조민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7월

위 원 장 _____(인)

부 위 원 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경제적 지지가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위기상황 중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동시에 철회되는 것을 지각한 대학생과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정서적 지지만 철회되는 것을 지각한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주의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를 통해 비교하는 것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지지 철회가 대학생의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부모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진로선택에 있어서 혼란과 정서적 불편감을 경험했던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실험설계를 수정·보완하여 두 집단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주의편향에 대한 반응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진로 선택의 불편감을 이미 경험한 대학생 3명에게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겪었던 정서적·인지적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험 자극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 있어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시나리오는 상담 전문가와 대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은 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총 65명의 서울 및 경상북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실험에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58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험은 실험자와 피험자가 일대일로 실시하였으며, 실제 대학생들이 연구 대상으로 참여하였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사고검사(CTI)로, 진로정보에 대한 주의편향은 정서스트룹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서 스트룹

과제가 실험에 포함되어 있어, 피험자들에게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연습을 실시한 후 본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에 있어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어 피험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동일한 진로사고검사(CTI)를 실시하여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정서스트룹 과제에서 역시 개인의 단어당 발음속도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어당 발음속도를 측정,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철회당한 것을 지각한 대학생 집단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당한 것을 지각한 대학생 집단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주의편향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서는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정서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지를 철회 당한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 당한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혼란과 외적갈등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행불안 점수에 있어서 경제적·정서적 지지 철회 집단이 정서적 지지 철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 위기 상황이 대학생의 진로관련 정보처리, 특별히 주의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서스트룹 과제의 경우에도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철회 당한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 당한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긴 반응시간을 보여, 위협적인 자극에 보다 더 주의를 배분하였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지지가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제언을 넘어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지의 철회가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진로관련 정보처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생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지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나아가 진로사고과정에서의 초기 단계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주의편향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상승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지지 철회가 대학생의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매커니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경제적 지지의 철회를 실험장면에서 구현함으로써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지지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모의 경제적 지지 철회가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결과는 향후 대학생 진로상담 장면에서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키며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을 돕는 진로상담적 개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진로상담, 역기능적 진로사고, 주의편향, 부모지지, 부모의 경제적지지, 지지 철회

□ 학번: 2012-21343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9
3. 용어의 정의	10
II. 이론적 배경	13
1. 부모의 지지	13
1) 부모의 지지와 자녀의 진로	13
2) 부모의 경제적 지지 및 정서적 지지와 자녀의 진로 ..	15
2. 역기능적 진로사고	18
1)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	18
2)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개념	19
3)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부모 지지의 영향	23
3. 주의편향	24
1) 주의편향의 개념	24
2)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주의편향과 부모의 위기	26
III. 연구 방법	30
1. 연구대상	30
2. 연구절차	32
3. 연구도구	39
4. 자료분석	45

IV. 연구결과	46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46
2. 실험 조작 확인	48
3. 역기능적 진로사고	51
4. 주의편향	57
V. 논의	61
1. 요약 및 논의	61
1) 역기능적 진로사고 결과에 대한 논의	62
2) 주의편향 결과에 대한 논의	64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66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68
참고문헌	70
부록	81
Abstract	93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31
<표 2> 실험 집단 구성	31
<표 3> 예비 연구에서 제시된 피드백과 수정 내용	35
<표 4> 진로사고검사(CTI)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41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정서상태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증	47
<표 6> 실험절차 통제정도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증	48
<표 7> 집단에 따른 실험조작에 대한 기술통계	49
<표 8> 집단에 따른 실험조작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49
<표 9> 사전 역기능적 진로사고 결과에 따라 교정된 사후 역기능적 진로사고 결과	52
<표 10> 역기능적 진로사고 결과 공분산분석 결과	52
<표 11> 사전 수행불안 점수에 따라 교정된 사후 수행불안 결과	54
<표 12> 사후 수행불안 결과에 따른 공분산분석 결과	55
<표 13> 단어당 발음시간, 각성도, 몰입도에 따라 교정된 스트룹 반응시간	58
<표 14> 반응시간에 따른 공분산분석 결과	59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진행 절차	33
[그림 2] 실험 진행 절차	38
[그림 3] SAM 척도	44
[그림 4] 집단에 따른 정서적·경제적 지지 철회에 대한 경험 평균 비교	50
[그림 5] 집단에 따른 역기능적 진로사고 평균 비교	53
[그림 6] 집단에 따른 수행불안 평균 비교	56
[그림 7] 집단에 따른 정서 스트룹 과제 반응시간 평균 비교	6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란, 개인이 그 일생동안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며 거쳐가는 모든 체험을 의미한다(김봉환&김계현, 1997). Super(1957)는 진로를 각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사건들을 포괄하는 과정으로, 개인이 자아를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헌신을 표출하기 위해 배향하는, 직업 및 그 밖의 생애 모든 역할들의 연속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가 단순히 직업적 역할 혹은 직업 선택 뿐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과정 즉, 일과 여가, 개인의 발달, 가족에 대한 헌신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인간에게 진로는 관념적이기 보다는 보다 역동적이며, 개인의 욕구, 포부, 동기 등으로 인해 작용하는 심리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황매향, 2007).

개인이 20대로 접어들면서 시작되는 대학생 시기는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발달과 함께 진로와 관련된 발달이 중요시 되는 시기이다(한효정, 2012). Erikson(1968)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중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의 발달과업은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자신의 정체성 탐색과 확립을 통해 성인기로의 이동을 준비하게 된다. 발달과업의 성취는 현재에의 적응과 더불어 성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예언 지표가 되기에 자신의 흥미와 소망을 반영하며,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 결정하는 일은 대학생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박선희, 박현주, 2009; Super, 1990). 실제로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의 2011년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적응문제, 학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진로문제 등 13

개 문제에 대해 당장 해결해야 하는 정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학업 문제와 진로문제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적응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여러 대학들이 발표한 학생 생활실태 조사결과에서도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미래문제를 포함한 진로 및 직업선택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김계현 외, 2011) 대학생의 진로문제 해결 방안 및 효과적인 진로상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학생의 진로문제와 관련된 연구의 주요 경향 중 하나는 진로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다. 이는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에서의 인지적 접근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인지 재구조화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 학습에 중점을 둔다(Mitchell & Krumboltz, 1987). 또한 또다른 인지적 측면으로 진로발달 및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영역에서의 진로 관련 정보의 처리(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Brown & Brooks, 1990)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진로 관련된 인지적 측면 중에서도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 선택 능력과 실행을 저해하기 때문에(Dodge, 2001), 내담자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함(Young & Chen, 1999)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인지적 측면을 역기능적 진로사고로 개념화한 Peterson, Lentz, Reardon(1992)은 인지정보처리이론과 인지치료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를 개발하였다(Sampson et al., 1996)를 개발하였다. Peterson, Lentz, Reardon(1992)은 이 검사를 통해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서의 진로사고를 나열하고, 전체적 지수와 의사결정혼란, 결단불안, 외적갈등의 3개 하위요소로 분류하여 진로문제해결

과 진로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담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검사의 개발을 통해 진로발달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이들 역기능적 인지가 내담자의 의사결정 회피, 미결정, 무력감과 우울, 흥미저하, 진로준비활동 방해 등을 야기함이 보여졌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Corbishley & Yost, 1989; Dowd, 1995; Lewis & Gilhousen, 1981). 그 과정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정서적 변인이 아닌 오직 인지적 변인(Dodge, 2001; Osborn, 1999)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Sampson, Peterson, Lentz, Reardon 및 Saunders(1996)의 연구에 의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부정적인 정서 역시 야기하며 정확한 문제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인지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역기능적 사고가 다시 강화되는 순환과정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 정서와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상호작용관계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감정 및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기능적 진로사고 관련변인을 탐구하여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향자 & 강혜원, 2003; 최현영 & 서영석, 2005).

또한 보다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진로 관련 인지적 측면으로써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합리적 신념이나 역기능적 사고, 인지 왜곡 등의 신념과 같은 사고 수준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진로관련 정보처리와 같은 기능과 같은 미시적 인지적 측면이 실제 진로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언급하였다(이형국, 2010).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진로 정보의 탐색, 수집, 그리고 결정까지 이르는 각 단계에서 충분하고, 적절하며 균형된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Clark, Gelatt, & Levine,

1965; 조애리, 2012). 그런데 이러한 정보에의 균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보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 상황에서 개인은 서로 다른 정보나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배분하게 된다(Norman & Bobrow, 1975). 즉 무한한 정보를 전부 탐색할 수 없을 때 개인은 자신의 인지적인 지각과 해석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 정보처리 과정은 균형적이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진로 결정자의 해석, 정보의 성격 등에 따라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선택 및 처리가 달라지게 된다(Pitz & Harren, 1980). 그런데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편향된 진로정보 수집이나 기억으로 인해 적절하게 사용할 정보들에 대한 수집이 방해받게 되면 진로결정의 질이 심각하게 손상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Kray & Galinsky, 2003). 정보 습득과 주의, 기억에의 편향이 현실적인 대안사고 생성을 어렵게 하고(권석만, 유성진, 정지현, 2001), 이러한 편향의 반복으로 인한 자동화가 습관처럼 굳게 되면 전반적인 정보처리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최문기, 2005). 따라서 진로 관련 정보에 대해 편향을 일으키는 요인을 확인하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이나 보호요인 등 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아라, 2013).

최근까지 진로상담 관련 연구들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 특별히 부모가 청소년 후기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허윤희, 2004). Lopez(1989)는 남학생에게는 갈등 없는 부모와의 관계가, 여학생에게는 갈등 없는 아버지와 관계가 높은 진로정체감의 유의미한 예언변인이라고 제시했으며, Blustein(1991)은 애착과 합쳐진 심리적 독립이 진로수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언급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기학(1999)이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부, 모에 대한 애착이 특성 불안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고, 박은선과 이재창(2009) 또한 아버지의 지지가 자녀의 진로탐색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조성연 외(2005) 역시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한 연구에서 가족의 과정적 변인인 부모양육태도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와 건강한 심리적 독립, 지지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안전한 기지가 되어 줄 수 없는 상황으로의 진입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김경주(2010)는 소외계층집단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있어 다른 환경적 특성(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교육수준, 교사지지, 친구지지)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인 배경이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 정지혜(2006) 또한 중산층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보다 더 낮은 진로태도를 보이며, 졸업 후에도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경우, 자녀의 진로 발달 및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또한 자녀의 진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연구들(Bechara, Damasio, Damasio, & Lee, 1999; Bechara, Damasio, Tranel, & Damasio, 1997; LeDouX, 1996)과 정서지능 이론들(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7)은 정서가 진로의사결정에 수반되는 인지적 과정과 상호작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로준비 과정은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에 대

한 현실적인 자기평가나 인식을 하게 되고, 구직활동 실패와 같은 거부 혹은 거절의 경험을 다수 포함하기 때문에 진로준비과정에서의 정서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김수리, 2005, 엄영순&최연실, 2009)는 연구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부모의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한 290개의 한부모 가정 자녀의 36%가 발생 초기에 우울감, 열등감 등을 느낀다는 황은숙(2012)의 연구와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정서적으로 우울, 불안, 분노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강윤정(1999)의 연구 결과는 부모의 위기상황이 자녀가 정서의 불안정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감은 자녀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인지적 과정을 왜곡되게 하여 부적응적 진로발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발달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런데 대학생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정서적 지지가 중요함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 결과에 있어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경제적 지원 부족이 진로포부에 대하여 8%의 설명력을 가짐을 밝힘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대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현진(2008)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물질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임통일(2014)은 가족 지지와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가 계획수립, 문제해결,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자기평가 등 진로자

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보였다. 노미숙(1999) 또한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하였으나, 물질적 지지는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음을 보였다.

이처럼 연구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대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대상 선별에 어려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발달 수준과 관계없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자원으로, 이미 안정되어 있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적 지원을 변화를 경험하기 쉽지 않으며, 따라서 그 영향력을 자녀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가족지지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 중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는 주로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가 20대 초중반을 지나게 되는 대학생 시기는 부모가 50대에서 60대에 들어서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며, 부모는 실직, 정년, 갱년기, 투병, 사별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위기 상황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지까지 철회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진로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부모위기 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자녀가 기능적으로 인지하며,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철회가 대학생의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 철회 중에서 경제적 지지 철회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에게 급작스럽게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실험 상황을 사용하여 부모가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두 집단 간에 경제적 지지 철회에 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에 1) 자기보고를 통한 역기능적 진로사고(CTI)의 차이와 2) 주의편향 측정을 통한 진로 정보 처리 속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철회가 대학생 자녀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진로선택과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의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위기라는 실험상황 제시를 통해 부모지지 철회가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급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부모가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철회하게 된 상황에의 노출과 부모가 정서적 지지만 철회하게 된 상황에 노출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모의 위기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지의 동시 철회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 철회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보다 더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모의 위기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지의 동시 철회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 철회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보다 더 높은 주의편향을 보일 것이다.

3. 용어의 정리

1) 부모의 위기상황과 경제적지지 철회에 대한 조작적 정의

부모 지지에 대한 내용은 학자마다 다소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4가지로 구분된다.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랑과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정서적 지지; 칭찬, 소질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고양, 의사존중에 관한 평가적 지지;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제공 등에 관련된 정보적 지지;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관한 물질적 지지로 구분하였다(노미순, 1999).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선택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Astin, 1984; Compas, 1987; Brien, Duskstein, & Jackson, 1999; Flouri & Buchanam, 2002; 안민영, 2009)에 따라, 자녀의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부모의 네 가지 지지 영역 중 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지 여부가 자녀의 진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의 불일치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관련 연구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어 경제적 지원의 여부의 영향력보다는 낮은 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대학생을 부모에게 다가온 위기상황으로 인해 1)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함께 철회된 상황과 2) 부모의 정서적 지원만 철회된 상황에 노출시킴으로써 일반 대학생이 부모에게 다가온 위기상황으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갑자기 철회되었을 때 경험하는 진로관련 사고를 실험을 통해 확

인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대학생의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위기상황을 자녀에게 제공하던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철회, 혹은 정서적 지지의 철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 때 두 집단이 제공받는 상황의 차이가 경제적지지 철회의 여부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차이가 부모의 경제적지지 철회에 대한 지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의한다.

2) 역기능적 진로사고(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의사결정과 진로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생각들로 내담자의 의사결정 회피와 미결정, 무력감과 우울, 흥미저하와 진로준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개인의 곤란수준인 의사결정 혼란, 자신의 흥미·적성·능력에 대한 자기이해부족, 그리고 자신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타인의 의견을 분별하지 못하는 곤란수준인 가치갈등을 말하는 것으로 진로사고 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에 근거하여 작성한 48개문항으로 된 역기능적 진로사고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정도를 말해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진로정보에 대한 주의편향

진로결정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보 처리는 진로 관련 정보 혹은 자

극을 인지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주의를 배분하거나 정보를 도식화 하는 등 인지적 작업에 대한 개념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보의 인지적 처리 과정 중 주의편향에 초점을 두었다. 주의편향은 전주의단계 (preattentive)에서 일어나는 정보에 대한 인지적 처리를 확인하고자 함이다(Williams et al., 1988).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지지

1) 부모의 지지와 자녀의 진로

지지란 다양한 지지원으로부터 제공된 다차원적 현상을 명시하는 개념으로, 타인에 대한 상징적 혹은 물질적 도움의 제공,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관계적 거래를 뜻한다(Daimond, 1979). 박지원(1985)은 지지적 행위의 속성을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애정, 존경, 관심, 경험, 신뢰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 둘째는 일을 대신해주거나 물건, 돈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셋째는 문제 대처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그리고 마지막 넷째 범주는 인정이나 부정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이다. 지지의 개념 중에서도 부모 지지는 학자마다 다소차이가 있지만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지로써 사랑, 이해와 격려, 신뢰, 관심, 그리고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정서적 지지; 칭찬, 소질인정, 인격존중, 가치고양, 공정한 평가, 의사존중에 관한 평가적 지지; 의사결정, 문제해결 적용,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조언, 충고, 지도와 사회에 관련한 지식제공 등의 정보적 지지; 물건, 돈,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관한 물질적 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노미순, 1999).

가족은 현존하는 사회체계 중 가장 결속력이 강한 지지체계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은 개인의 대인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이경민, 2005). Holland(1985)의 초기 직업 선택 이론은 가족변인 보다는 개인의 흥미를 통해 직업 선택이 이루어짐을 제시한 반면에 진로이론에 관한 가족체계 접근 지지자들은 자녀의 진로 선택 혹은 미결정이 성취나 성격특성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들 간의 교섭체계로 개념화되며, 특정한 가족 상호작용들을 통해 경험되는 분위기가 미결정을 조장하거나 유지시킴을 강조한다(Lopez & Andrews, 1987). 이렇듯 가족과 가족지지의 영향은 직업이론가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진로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Osipow, 1983).

부모는 자녀 생애 첫 관계 대상으로써,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지지가 자녀의 진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져 왔다. Astin(1984)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진로관련 의사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게 하는 ‘가치를 사회화시키는 자(value socializers)’로써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으며, Eccles(1994)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를 사회화시키는 자(expectancy socializers)’로써 역할하는 것을 통해 자녀가 학업적 및 직업적으로 유능한 존재라는 자기 지각을 형성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였다. 또한 Young 등(1994)은 부모는 자녀에게 진로관련 행동과 목표 지향적 행동을 모델링 해주고, 진로관련 학습 경험을 활발히 제공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업적 목표에 도달하도록 격려하는 제 1의 제공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청소년 진로 발달에 대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자녀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 중 부모가 제공하는 지지는 자녀들이 보다 더 건설적이고 덜 회피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도우며(Compas, 1987), 자녀의 지각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 문제에 대한 적응적 대처방식을 형성시킴으로써(Avison & McAlpine, 1992; Bandura, 1982) 자녀의 진로 태도 및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Garmexy, Devine 그리고 Tellegen(1980)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견뎌내는 청소년의 다수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모의 지지를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이 완화되고, 적응적인 대응 행동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지지는 스트레스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더불어 진로선택 과정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부모 지지가 자녀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는데, 김수리(2004)는 부모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지지와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보임을 제시함을 통해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낮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2) 부모의 경제적 지지 및 정서적 지지와 자녀의 진로

반면, 부모의 지지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자녀의 경우, 부모의 지지를 충분히 받는 자녀에 비해 낮은 진로 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빈곤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의 저소득,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O'Brien, Duskstein, & Jackson, 1999; Flouri & Buchanam, 2002). 이는 빈곤가정 자녀들이 학교 졸업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김은희, 2001). 또한 배천웅(1978)은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제공되는 생활기회(chance of life)와 생활양식(way of life)에

차이를 갖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지위 획득이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였다(김성익, 1994).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부부간의 갈등을 가중시키며, 배우자의 가출 혹은 이혼과 같은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등 자녀의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위협하여(정지혜, 2006) 자녀의 진로발달에 다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불충분한 것 역시 자녀의 진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Sewell이 Wisconsin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개인의 능력, 학업 성적 등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중요한 타인의 영향이 청소년의 직업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허철수, 1986). 안민영(2009) 역시 대학생의 가족지원체계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합리적이고 탐색적인 진로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여준다. 그런데 부모의 정서적인 지지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모의 경제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미숙(1999)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지지의 4개 하위요소 중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물질적 지지는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단기간에 변하지 않은 안정적인 환경적이며 외부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이 아

닌 일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지지를 경험하고 지각할 때 관계적 요인에 가까운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에 비해 환경적 요인인 물질적 지지의 영향력에 대해 지각하기가 보다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확인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역기능적 진로사고

1)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

인지는 외부자극의 지각, 외부 혹은 내적 자극 처리(사고, 평가, 해석, 의미부여 등), 기억에 저장된 내용(신념, 가치, 가정, 이론, 철학 등) 등과 같이 내부에서 진행되는 정보처리와 관련된 과정을 의미한다(권석만 외, 2001). 인지적 접근에서는 사람의 감정 혹은 행동이 사건이나 상황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해석, 즉 인지(사고, 신념)에 의해 결정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진로 영역에서의 인지는 진로 관련 정보 처리와 진로 의사결정 관련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재창 외, 2002).

인지적 정보처리 접근의 개념적 틀은 정보처리 피라미드와 CAVSE 주기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서 정보처리 피라미드는 진로문제해결과 의사결정관련 정보처리 영역을 의미한다(Peterson, 1991). 피라미드 하단은 지식 영역으로, 자기지식(self knowledge)과 직업지식(occupational knowledge)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기지식은 흥미, 가치, 기술 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직업지식은 구체적인 직업과 교육적 훈련 기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피라미드 중간부분은 의사결정기술(decision making skill) 영역으로, 개인이 어떻게 전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정보처리기술 영역이다. 이 영역에 포함되는 CASVE 주기는 ‘의사소통(communication)-분석(analysis)-종합(synthesis)-가치화(valuing)-실행(execution)’의 일련의 절차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 과정을 설명한다. 피라미드 기저에 있는 두 지식영역으로부터의 정보가 CASVE 주기를 통해 의사결정 기술영역으로 전환되고, 문제 인식에서 해결책의 수행까지 진행된다

게 된다. 피라미드 상단은 실행과정(executive procession)영역으로 초인지(metacognition)가 위치한다. 초인지 영역에서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기술이 포함, 활용되는데, 자기언어(self-talk), 자각(self-awareness), 그리고 통제와 감독(control and monitoring)이다(Peterson, 1991).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인지 영역의 기술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은 진로문제해결이나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진로문제가 일반적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이유를 ‘진로선택이 두 가지 정보, 즉 객관적인 직업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 인지로 해석된 유동적이며 다소 불안정한 자기정보(self-knowledge)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이 지각한 자기정보와 직업정보간의 서로 다른 변동폭은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상승시키고, 부정적인 정서가 야기되어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개인이 집중하고 기억하는 것을 방해한다(Sampson, 1966). 이에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는 진로의사결정이 단지 인지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과정임을 명시하고, 진로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적 측면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정보처리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 진로문제 해결력을 상승시키는 것이 진로상담의 목표라고 강조한다.

2)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개념

진로사고(career thought)란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 관련된 태도, 행동, 감정, 신념, 계획 혹은 전략에 대한 사고의 결과를 의미한다. 진로사고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진로신념(career belief), 진로장벽(career barriers)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진로신념은 진로를 계획하고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생각을 뜻하며, 진로장벽은 직업 혹은 진로계획에 있어서 진로목표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로 정의된다(정홍원, 2002). 진로사고는 진로신념이나 진로장벽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감정, 행동, 태도, 신념 등에 대한 총체적인 사고의 결과를 뜻하며,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부정확하며 자기 파괴적인 신념이 진로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진로 및 직업 상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경향 중 하나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개입이다. Brown 과 Brooks(1991)는 진로문제에 있어서 인지적 명확성을 연구하였고 Spokane(1991)는 대안들의 평가를 위해 인지적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Rounds 과 Tracey(1990)는 진로사정 및 상담에 대하여 정보-과정적 접근을 주장했다. Neimeyer(1988) 역시 인지적·직업적 도식이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Brown 과 Brooks(1990)는 인지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능력들이 오랫동안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였다. 이처럼 진로발달과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영역에서 인지적 측면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인으로 폭넓게 인식되어 왔으며(Lusting & Strauser, 2002), 이런 영역에서의 연구들은 개인의 진로 및 직업행동이 직업인지, 행동,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받으며 이 과정에 인지가 개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Keller, Biggs, & Gysbers, 1982).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영역에서의 인지적 측면 중 진로 관련 정보의 처리와 진로의사결정의 한 과정으로 작용한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Krumboltz(1990)는 dysfunctional career belief로, Corbishley와 Yost (1989)는 dysfunctional cognitions로 명명하였으며, Dryden(1999)는 self-defeating assumptions, Borders와 Archadel (1987)은 self-beliefs,

그리고 Brown 과 Lent(1996)는 faulty self-efficacy beliefs라고 명명하였다. Peterson 등(1992)은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The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이하 CIP)과 인지치료의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역기능적 인지를 진로관련 역기능적 진로사고로 개념화하고, 이를 토대로 진로사고 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이하 CTI)를 개발하였다. 진로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며,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는지의 측면에서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을 진로발달에 적용시켜 검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진로와 관련된 혼란과 미결정을 야기하는 진로 사고상의 역기능적 인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최현영 & 서영석, 2005). 역기능적 진로사고검사는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먼저, 의사결정혼란은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또는 정서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한 척도이다. 의사결정혼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및 명확성이 부족하며, 문제에 압도당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기 어렵고, 문제해결과정에서 불안 및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다. 수행불안은 진로의사결정과정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불안으로 인한 개인의 무능력을 반영한 척도로, 이러한 불안은 진로미결정을 지속시키게 된다. 수행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등 선택과정에서의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마지막 외적갈등은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하는 내부적 갈등에 관한 것으로, 중요 타인에게서 얻은 정보의 중요성과 자기 스스로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간에 균형조절에 있어서의 능력의 부

족함을 반영한 척도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문제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먼저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내담자로 하여금 진로에의 혼란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wd(1995)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우울감과 무력감을 야기하며 진로의사결정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orbishley와 Yost(1989)에 의하면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내담자의 의사결정력을 저해하고, 흥미 발견을 어렵게 하며, 진로준비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고들은 두려움, 무력감, 확신부족, 좌절감,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는 등 내담자의 말과 감정, 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역기능적 사고는 부정적인 정서의 야기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 정확한 문제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문제 해결력이 감소되고, 이는 또 다시 역기능적 사고를 강화시킴으로써 순환과정이 형성된다. 따라서 내담자의 진로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과정이 끊어져야 하며, 내담자가 역기능적 사고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지적 재구성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역기능적 진로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게 도울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보통 자기가치, 완벽주의, 그리고 과잉일반화 문제들의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형성하게 하는 관련변인들을 탐구하여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키고 의사결정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들을 정리하면,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는 개인의 감정 및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Young 과 Chen (1999)는 개인의 인지는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역기능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건강한 진로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구체적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효과적인 개입이 제기되지 않고 있어 연구가 보다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부모 지지의 영향

자녀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부모의 영향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 인한 소외감과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자녀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부모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김유현, 2005; 이경민, 2004; 최인화, 2003). 고향자와 강혜원(2003)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정도 및 양상의 변화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역기능적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인화(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체계유형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 가족체계 유형에서 경직과 혼돈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개인이 관계를 맺는 중요한 사람들,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다.

3. 주의편향

1) 주의편향의 개념

인지 과정에 대한 정보 처리적 접근은 정보처리의 전 과정, 즉 주의, 추론, 기억 등에서 특정 정보에 대한 선택적인 편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인지 과정의 초기 단계로서 주의를 이후에 처리하게 될 정보의 내용 및 해석 경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지 과정의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어 왔다. 주의의 기본적인 역할에는 유기체가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최적의 준비 상태에 있게 하는 경계(vigilance) 기능, 감각 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수많은 정보 중 대부분은 무시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게 하는 선택(selection) 기능, 그리고 둘 이상의 과제가 있을 때 제한된 처리 용량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할당(allocation)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해 지각이나 기억, 학습, 문제해결, 그리고 언어 이해 등의 인지 과정에서 초기적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주의를 포함한 정보처리의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개념을 자동적/암묵적 정보처리 혹은 연상적 정보처리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연상적 정보처리가 매우 신속하게 발생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의편향이란 특정 자극을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주는 정보처리과정이다. 인지편향, 주의편향, 기억편향 및 해석편향 등의 기능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탐지하는 것이다. 이 기능의 발달은 유기체의 생존 중대성의 결과로서, 위험을 경고하는 이러한 정서 정보는 뇌의 특정 급속 경로를 통하여 가장 빠르게 처리됨으로써 처리 우선권을 획득한다. 이 때 정서

정보가 타정보 처리에 비해 처리 우선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뇌의 기타 정보처리가 간섭을 받게 된다(Brosschot, 2002).

특히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의편향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보여졌다. 먼저 Mathew와 MAcLeod(1985)는 높은 불안을 보이는 임상 집단이 ‘암’과 같이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한 정서 스트룹(stroop) 과제에서 타 일반 비임상 집단보다 더 지연된 반응시간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더 높은 주의편향을 보임을 검증하였다. 이는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위협적인 자극에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할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위협자극이 지각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각성되며, 과제 수행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Williams 등(1996)의 연구 역시 피험자의 높은 불안이 불안 관련 단어를 사용한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반응속도를 늦춤으로써, 불안이 높을수록 위협 단어에 대한 간섭효과를 더 크게 받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불안 수준이 자신의 불안 내용과 일치하는 정서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인지적인 자원을 투입하게 함을 알려준다.

Ouimet, Gawronski와 Dozois(2009)의 최근 연구는 위협 자극의 자동적 처리과정과 통제적 처리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위협관련 연상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자극이 위협 관련 자극이라고 평가, 해석하기도 전인 30msec부터 일어나게 된다. 즉 주의 편향이 나타나는 30~1000msec의 시간 동안에 객관적 평가보다는 모호한 정보를 더 위협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른 행동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Mogg 등(1993)과 Bradley, Mogg, Millar, 그리고 White(1995) 역시 주의 편향이 일어나는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협자극 제시를 역치 이하 수준으로 제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 결과 주의편향은 전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이 보여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불안 환자들이 정보처리 초기 단계에서 선택적 편향을 보인다는 타 선행연구(Williams, et al., 1988)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렇듯 주의 배분과 자극의 처리는 전주의 수준과 같이 정보처리의 매우 초기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위협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이 매우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인지적 취약성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Williams et al., 1988). 뿐만 아니라 전주의 과정의 편향은 일반 환경에서 유사한 자극에도 쉽게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 및 세상을 위협한 곳으로 인식하게 하고, 경험이나 접촉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여 임상적 정서 장애를 유발하기 쉽다(Mogg & Bradley, 1998).

이와 같은 연구들을 보았을 때, 위협적인 상황에의 노출은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정보처리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위협 자극 관련 연상체계를 활성화 시키며, 위협 자극에 선택적인 주의를 쉽게 기울이게 하여, 이에 따른 비합리적 행동적 결정을 내리게 하는 역기능적 인지과정을 경험하게 함을 알 수 있다.

2)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주의편향과 부모의 위기

Mathew와 MacLeod(2002)이 주의 배분과 관련하여 제창한 위협 평가 시스템(Threat Evaluation System)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이 설명하는 위협 평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정보가 입력되면 개인은 그 정보의 위협 정도를 아주 빠르게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협 정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은 그 위협 자극과 관련된 의미 혹은 표상에 대한 활성화를 높여 추가적

인 주의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아주 사소한 자극일지라도 입력된 자극이 위협자극으로 판단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활성화 시키고, 주의를 더 할당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당시 처리되는 다른 중요한 과제들로 할당되었던 주의 자원들을 줄이게 하여 그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진로에 관련한 부정적인 자극들 역시 주의편향을 일으키는 위협적 자극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아라(2013)는 대학생에게 진로탐색과정에서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수용 혹은 회피를 하게 함으로써 진로정보에 대한 인지처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진로 결정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 결과로부터 오는 경험을 억제하거나 주의전환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진로와 관련된 위협적인 자극을 보았을 때 자동적으로 이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집중하고 이를 처리하느라 인지적 혹은 정서적 자원을 많이 배분했음을 보였다. 이 결과는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 자극 및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극 및 정보가 무수히 혼재하는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위협 자극이 존재하는 현실 혹은 환경 자체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진로대안탐색이나 결정상황으로부터 회피하게 하고, 수행의 질과 기능을 떨어뜨리게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Ehler, Margraf, Davies, & Roth, 1988; 이아라, 2013).

주의편향은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가 활성화 되어, 위협적 자극에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이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부모의 위기상황은 자녀에게 이러한 위협적인 자극에의 노출과도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부모의 위기상황은 자녀를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시킴으로써 안정감 경험을 박탈하여 정서적 불안함 상태로 진입하도록 한다.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특히 부모의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의 경우부모의 지지가 심리적인 긴장과 정서적인 역기능과 보다 덜 관련이 되어

있는 편이다(Holahan & Moos, 1990, 1991).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대한 의존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 변화 시기에 받는 스트레스 체계로써 의존 대상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의존하는 대상의 지지 제공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Compas, 1987).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후기 청소년 시기의 중심적인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수용과 공감, 그리고 지지는 이 시기의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의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역할하게 된다(Avison & McAlpine, 1992; Grotevant & Cooper, 1985; Powers et al., 1989). 이렇듯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부모의 지지가 철회되는 것은 대학생에게 자원의 박탈과도 같은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진로선택에 있어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과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Kelly, 2008). Germejis와 DeBoeck(2003)는 진로결정과정에서 미결정의 원인을 ‘정보의 부족’, ‘평가 어려움’,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렇듯 통제 불가능한 현실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Humphreys & Berkelesy, 1985).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경험하는 대학생에게 부모의 위기상황에의 노출, 특히 위기 상황으로 인해 부모의 지지가 철회되는 경험은 자녀로 하여금 더욱더 현실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학상담 장면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상담을 받을 때 부모의 위기와 이로 인한 부담감 및 정서적 불편감을 호소하며, 진로선택에 있어 과한 긴장과 조급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지 철회가 대학생의 진로관련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부모위기상황이라는 맥락적 변인을 연관시켜 생각해 보았을 때, 부모위기상황이 위협자극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인지적 정보처리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는 바,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부모 위기상황으로 인한 지지의 철회가 실제로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증가와 진로 정보 처리과정에서의 주의편향이 유의미한 차이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상북도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학부생 대상 수업의 수강생과 대학 게시판을 통해 실험 공고를 하고(부록1) 참여자로 신청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모집되었다.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 중 진로를 완전히 결정한 사람들과 ‘가족화목도’와 ‘아버지와의 관계’ 질문에 Likert 5점 척도에서 3점 미만을 보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실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실험 신청 및 참여에 대하여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총 65명의 연구 참여자 중 정서스트룹 음성반응을 다 하지 않거나, 녹음이 되지 않거나, 재채기 등의 이유로 단어 발음 간격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4명, 설문지에 결측값이 있어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1명, 그리고 시나리오 상황이 본인의 상황과 너무 달라 몰입이 어려웠다고 보고한 2명을 제외한 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총 58명의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23명(39.7%), 여자 35명(60.3%)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만 19세에서 26세로 평균 나이는 22세($SD=1.60$)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구체적인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3	39.7
	여	35	60.3
학교	E대학	7	12.1
	S대학	41	70.7
	H대학	10	17.2
학년	1학년	5	8.6
	2학년	13	22.4
	3학년	28	48.3
	4학년	9	15.5
	9학기 이상	3	5.2
총합		58	100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부모의 위기에 따라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철회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부모의 위기에 따라 정서적 지지만 철회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중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동시철회 집단, 정서철회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각 집단의 사례수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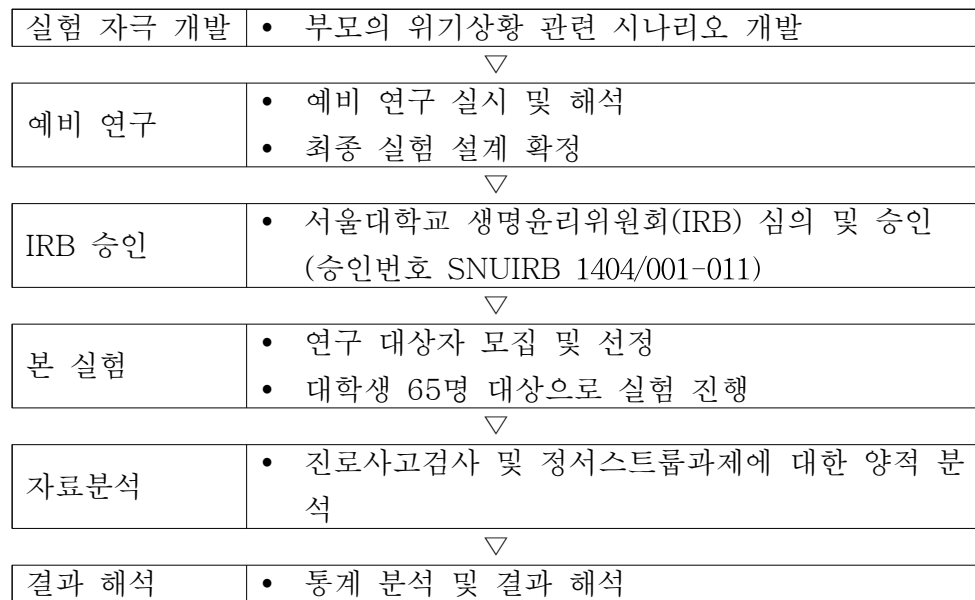
<표 2> 실험 집단 구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동시철회 집단	남	12	40
	여	18	60
	합계	30	100
정서철회 집단	남	11	39.3
	여	17	60.7
	합계	28	100
총합		58	100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지지의 철회 종류에 따라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인지적 정보처리가 달라지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제적 지지의 철회가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경제적 지지 철회 효과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실험집단에는 부모의 위기로 인해 이전에 제공되던 부모의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철회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비교집단에는 경제적인 지지는 철회되지 않고 정서적인 지지만 철회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경제적 지지 철회가 대학생 자녀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실제로 부모의 위기 상황이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 혹은 정서적 지원의 철회 경험을 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진로선택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예비 연구로써 부모의 위기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지지 철회의 내용과 정서와 사고, 그리고 진로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제시될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처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써 Sampson 등 (1996)에 의해 개발된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와, 이아라(2013)가 개발한 정서 스트룹(stroop) 과제 자극을 사용하였다. 최종 확정된 실험 자극을 사용하여 총 6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나리오 제시 및 실험 절차의 안내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PDF 형식으로 제공되었고, 진로사고검사 및 자극에 대한 평정은 설문지로 제공되었으며, 스트룹 과제에 걸린 수행시간은 프라트(praat)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녹음된 후 측정되었다. 또한 진로사고검사를 통해 실험 처치에 의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차이를 확인함에 있어 각 피험자의 고유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실험 신청 시 동일한 진로사고검사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 진행 절차

1) 실험 자극 개발

부모의 위기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사고와 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대학교 재학 시기에 부모가 위기 상황을 겪었고, 진로와 관련하여 혼란과 정서적 불편감을 겪었다고 보고한 대학생 2명, 대학원생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인터뷰 대상자에게 있어 부모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

있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 이전에 본인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부모위기상황이 본인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등 경험에 미쳤던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명의 아버지가 암, 당뇨와 같은 질병을 경험하였고, 1명의 부모님이 실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명 모두 집안에 경제적 타격이 있었는데 그 중 2명이 경제 상황의 유지를 위해 일을 찾았고, 3명 모두 진로에 혼란을 겪었으나 그 중 1명만이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의 위기상황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1)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둘 다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2)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 지지만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각각 제작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총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부모의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 두 번째 문단은 경제적 문제상황에 대한 설명(혹은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 있음을 암시하는 상황 설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두 시나리오의 첫 번째, 세 번째 문단은 동일하되 실험 처치를 위해 두 번째 문단만 다르게 제작하였다. 이 시나리오 초안을 토대로 상담 전공 교수 1인, 박사 2인 및 석사 3인과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가 제작되었다. 가상 시나리오의 세부 내용은 부록 2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2) 예비 연구

본 실험 절차 진행에 앞서 총 6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상담 전공 박사 1인, 석사 2인, 대학생 5인이었다. 예비 실험은 연구 실험 설계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잘 구현되었는지, 실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실험 진행의 어려움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제시된 피드백의 내용들은 <표 3>과 같다. 이러한 피드백들을 토대로 최종 실험 방법과 절차를 수정하였다.

<표 3> 예비 연구에서 제시된 피드백과 수정 내용

피드백 내용	수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에 신청서와 설문지를 다 작성하고자 하니 보기에 너무 길어 집중도가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서와 설문지를 분리해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같은 색 같이더라도 보는 이에 따라 명명하는 색깔 이름이 다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 스트룹 과제 안내 멘트에 사용된 다섯가지 색깔의 이름을 명명해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시나리오를 조금 더 보여주기 방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에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 안내 절차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안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 안내에 구체적인 예와 설명을 보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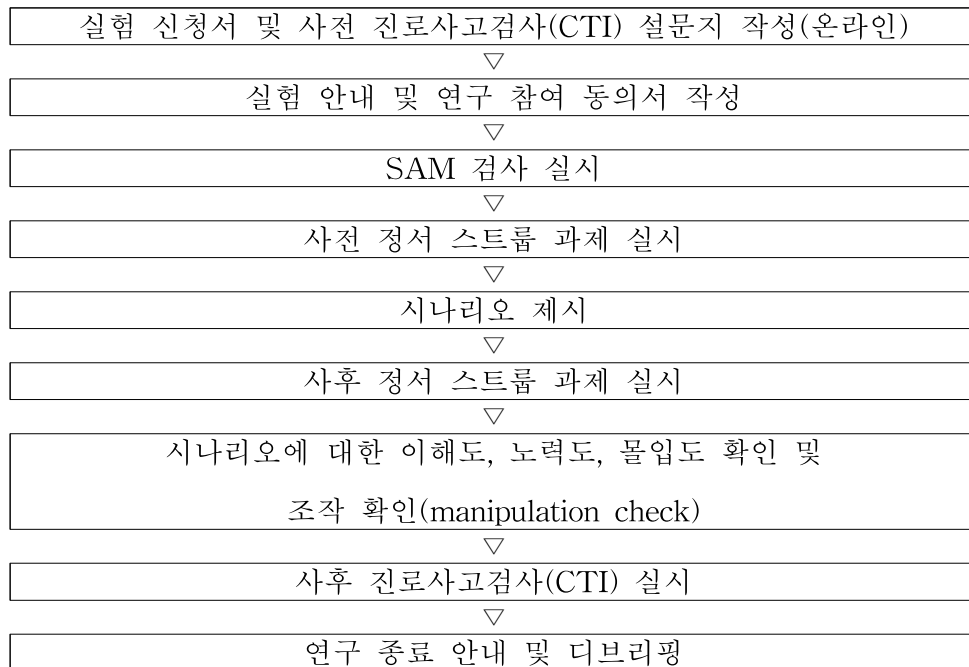
3) 본 실험

예비 연구를 통해 확정된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실험 신청 시, 신청자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Likert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요구 받았으며, 이 중 3점 미만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본 실험에 있어서 인지 부하를 줄이고, 설문지의 연습효과를 줄이기 위해 사전 진로사고검사(CTI)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본 실험 일주일 전까지 연구자에게 전송하도록 안내하였다. 실험은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가 1:1로 대학 연구실 혹은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험에 대한 연구 설명서와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시하였고, 내용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부모위기상황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지지의 동시철회 집단과 부모위기상황으로 인한 정서적지지 철회 집단에 무선 배정 되었다.

먼저, 연구자들의 현재 정서 및 각성 상태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해 SAM (Self-Assessment Manikin)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분 정도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최대한 본인의 일인 것처럼’ 1인칭 관점으로 몰입해서 지시문 및 시나리오를 읽을 것을 안내한 후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는 총 3 페이지로 PDF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시나리오를 읽은 후 30초 간 그 경험을 좀더 상상하고 느끼도록 안내되었다.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까지 총 4분정도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진로관련 단어로 정서 스트룹(stroop) 과제를 개발한 이아라(2013)의 단어자극을 사용하여 정서 스트룹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의 지시를 잘 따랐는지, 시나리오에 몰입하였는지, 또한 실험 처치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시문에 대

한 이해도, 지시문에 따르기 위한 노력도, 시나리오 몰입도, 그리고 조작 확인에 관련된 문항을 체크하도록 안내되었다. 조작 확인은 ‘이 상황에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두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작이 잘 되었을 경우 동시철회 집단은 두 문항 모두에 높은 점수를, 정서 철회 집단은 정서적 지원 감소 관련 문항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경제적 지원 감소 관련 문항의 응답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음으로 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진로사고검사(CTI)를 실시 했으며, 연구 참여자가 질문지를 다 작성하고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에는 연구에 대한 질의응답 및 디브리핑이 진행되었다. 디브리핑은 연구에 대한 설명과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결과가 확인되었을 경우 갖는 상담 적 함의에 대해 서면으로 제시되었다. 이 후 연구 종료 안내와 함께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자 1명과 연구보조원 1명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연구를 진행하는데 걸린 총 소요시간은 평균 35분이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실험 진행 절차

3. 연구도구

1) 진로사고검사(CTI)

본 연구에서 실험 처치로 인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역기능적 진로사고 측정도구로써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가 사용되었다. 진로사고검사는 Sampson 등 (1996)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로 관련 역기능적 사고를 자기보고 설문 형식을 통해 측정한다. CTI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 CIP)과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를 이론적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고(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Saunders, 1996), 현재 우리나라 표준화 작업을 걸쳐 출판되고 있다. 이 검사의 결과는 총점과 3개의 하위척도로 분석된다. 총점에는 효과적인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전반적 역기능적 사고를 나타내는 모든 항목의 점수 합계가 포함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명확성(self-clarity)의 부족으로 인해 흥미, 노력, 직업관련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의 하위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으로 구성된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CA, 10항목) 척도는 진로의사결정과정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능력을 반영한 척도로, 진로 미결정 지속의 이유 및 가능성을 제

시한다(문항의 예: 나는 직업에 대한 생각들이 자주 변한다). 높은 수행불안을 보이는 사람은 주어진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 일련의 선택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을 내리기를 어려워할 수 있다. 외적 갈등(External Conflict: EC, 5항목) 척도는 결정에 대한 책임감 회피 관련 갈등에 대한 것으로, 중요 타인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중요성과 자신이 스스로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간에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의 부족을 반영한 척도이다(문항의 예: 나에게서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항상 그것을 누군가가 방해한다).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 DMC, 14항목) 척도는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정서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 혹은 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한 척도이다(문항의 예: 나는 나에게 맞는 전공이나 직업선택을 잘 생각해낼 수 없다). 의사결정 혼란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와 명확성이 부족하며, 문제에 압도당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문제해결과정에서도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의 모든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전체 응답 중 무응답이 5개 이상이면 무효 처리한다.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3에 제시하였다. 이재창 등(200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사고 전체 신뢰도(Cronbach's)를 .95로,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의사결정혼란 .89, 수행불안 .62, 외적갈등 .85로 보고했으며, 김기명(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사고 전체 신뢰도(Cronbach's)를 .95로,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의사결정혼란 .91, 수행불안 .85, 외적갈등 .6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사고 전체 신뢰도(Cronbach's)는 .95,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의사결정혼란 .93, 수행불안 .86, 외적갈등 .67이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들은 <표 4>와 같다.

<표 4> 진로사고검사(CTI)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 요인	문항 번호
1. 의사결정혼란	1, 3, 4, 5, 11, 12, 13, 16, 20, 27, 28, 36, 43, 44
2. 수행불안	17, 21, 22, 26, 29, 30, 32, 35, 38, 47
3. 외적갈등	6, 9, 14, 23, 46
전체 진로사고	전 문항

2) 정서스트룹 과제(Emotional Stroop Task)

실험 처치는 각 집단의 진로 관련 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두 번째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인지적 정보처리 측정도구로써 정서 스트룹(stroop) 과제를 사용하였다. 정서스트룹 과제는 가장 먼저 개발된 전통적 스트룹 과제인 스트룹 색-단어 검사(Stroop color and word test)를 변형한 과제이다. 스트룹 색-단어 검사는 색상을 지칭하는 단어를 읽는 것보다 색상의 색깔을 직접 말하는 것이 항상 더 느리다는 초기 실험심리학의 연구에 기초하여, Brown(1915)이 색상 명명을 반복하더라도 단어의 의미 지각보다 결코 빠를 수 없다는 사실을 추가하였고, 이후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Stroop(1935)이 스트룹 색-단어 검사를 고안하였다(신민섭&박민주, 2007). 전통적인 스트룹 과제는 색이름(빨강, 노랑 등)을 단어들로 제시한 후 제시된 단어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를 표기할 때 쓰여진 색의 이름들을 가능한 빨리 말하도록 하여 말할 때 걸리는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트룹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주의를 자극의 한 측면(단어 인

색)에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측면(단어 의미)에의 주의를 억제해야 한다.

변형된 스트룹 과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정서 상태나 증상, 기타 특성에 맞게 단어를 변화시켜 사용하게 된다. 단어의 의미가 항상 단어의 색깔보다 먼저 인식되는 것, 즉 단어 의미의 자율적 처리가 단어 색명명의 통제적 처리를 방해하는 현상은 변형된 단어 내용에 따른 색채 명명 간섭효과(Interference Effect)로 명명되어, 변형된 단어 내용과 관련한 인지도식의 자동적인 활성화나 주의편향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이훈진, 2000).

정서 스트룹 과제 역시 참가자들은 채색된 단어를 제시받는다. 이 제시된 단어에 대해서 참가자는 채색된 색깔을 가능한 빠르게 명명하도록 과제를 부여받는다. 특별히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는 제시되는 단어가 특정 정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제시되는 단어가 사회적 위협 혹은 부정적 기분과 같은 특정 주제와 관련이 있을 때 색깔 명명이 지연되면, 이 현상은 단어의 내용에 주의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색깔에 초점을 맞추는데 방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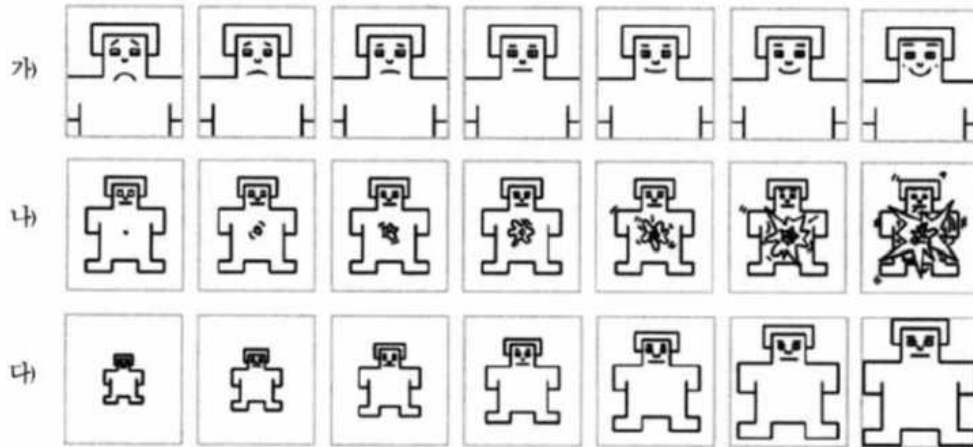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 스트룹 과제는 진로 상황과 관련되는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이아라(2013)가 개발한 단어자극을 사용하였다. ‘실패하다, 탈락하다, 무시하다, 비참하다, 무능하다, 비난하다, 초라하다, 좌절하다’의 8가지 단어를 사용하였고, 단어는 총 5가지 색깔(빨강, 파랑, 보라, 초록, 검정)로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단어가 제시되기 전 실험 참가자들은 ‘색깔로 적혀진 단어들을 보고 단어의 의미가 아닌, 단어의 색깔을 가능하면 빨리 소리 내어 말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단어는 컴퓨터 화면상에서 PDF 형태로 제시되었고, 각 단어가 각각 5번씩 제시되어 실험 참가자는 총 40회 응답하도록 안내되었다. 스트룹 단어의 제시 방

법은 하승연(2010)이 제시했던 방법에 기초하여 한 줄에 8개의 단어씩 총 5줄에 걸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응답은 마이크를 통해 녹음되었고, 녹음된 음성 파일은 음성분석기 프라트(praat)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3) 자기평가마네킹(SAM)

실험 참가자의 정서적 상태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 정서 측정 도구로써 SAM(Self-Assessment Manikin) 척도를 사용하였다. SAM 척도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그림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Lang(1980)이 개발한 SAM 원 척도와 Suk(2002)이 이를 일부 변형한 버전을 김민우, 최준식, 조양석(2011)이 활용하여 개발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SAM을 통해서 자극의 긍정성 혹은 부정성을 파악하는 호감도(pleasure), 자극이 유발하는 신체 활성도를 측정하는 각성도(arousal), 그리고 자극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영향력이나 주도감을 측정하는 통제감(dominance)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림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는 호감도를 나타내며 자극의 긍정성 혹은 부정성을 측정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슬픈 표정, 중간에는 중립적인 표정,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쁜 표정이 그려져 있어 피검자의 호감도 관련 정서를 측정한다. 나)는 각성도를 의미하며, 자극이 유발하는 신체적인 활성도를 측정한다.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각성, 중간에는 평소와 비슷한 각성,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각성을 의미한다. 다)는 통제감으로 피검자가 자극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주도감 혹은 영향력을 측정하게 되며,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통제감, 가운데는 평상시 같은 통제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통제감을 의미한다.



[그림3] SAM(Self-Assessment Manikin; 김민우 등, 2011)척도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학교, 학년), 사전 정서 측정을 위한 SAM 척도의 3가지 하위유형(정서 호감도, 정서 각성도, 정서 통제감)에 대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t-test)를 거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조작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를 읽은 후 부모로부터의 정서 지원이 철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과 경제적 지원이 철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두 집단이 동일하게 실험 진행에 잘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3가지 척도(지시문에 대한 이해도, 지시를 따르는 정도에 대한 노력도, 시나리오 몰입도)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t-test)를 거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처치 이후 사후 진로사고검사(CTI)에 대한 응답을 실험 전 실시한 사전 진로사고검사의 결과를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COVA)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의 편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 스트룹 과제에 걸린 시간을 프라트(praat)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000000초까지 측정하였다. 측정된 시간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단어당 발음속도, 각성도, 몰입도를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COVA)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부모의 위기상황에 대한 지각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이전에, 두 집단이 사전에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성별을 카이제곱 검정으로, 학교, 학년 등 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참여자의 실험 직전예의 정서 3가지(정서 호감도, 정서 각성도, 정서 통제감)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거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학교, 학년과 정서 상태로써 긍정성 혹은 부정성을 나타내는 호감도, 신체 활성도를 나타내는 각성도, 그리고 영향력이나 주도감을 나타내는 통제감을 비교하였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두 집단은 사전에 이상의 변인들에 있어서 동질한 집단으로 판단된다.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정서상태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값	자유도	접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성별	Pearson 카이제곱	.003	1	.956	1.000

		집단	<i>M</i>	<i>SD</i>	<i>df</i>	<i>t</i> (유의확률)
인구 통계 학적 특성	학교	동시철회 집단(n=30)	1.50	.777	56	.347(.730)
		정서철회 집단(n=28)	1.43	.790		
	학년	동시철회 집단(n=30)	2.70	1.022	56	1.335(.187)
		정서철회 집단(n=28)	3.04	.881		
	호감도	동시철회 집단(n=30)	4.50	1.432	56	-.500(.619)
		정서철회 집단(n=28)	4.68	1.278		
정서 상태	각성도	동시철회 집단(n=30)	3.37	1.033	56	.771(.444)
		정서철회 집단(n=28)	3.14	1.177		
	통제감	동시철회 집단(n=30)	3.83	1.289	56	-.400(.691)
		정서철회 집단(n=28)	3.96	1.201		

Note 1: 학교는 S대학=1, E대학=2, H대학=3

2. 실험 조작 확인

본 연구의 실험 조작 확인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실험 안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을 통해 실험 절차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3가지 영역(지시문에 대한 이해도, 지시를 따르는 정도에 대한 노력도, 시나리오 몰입도)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그 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t-test)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실험 절차 통제 정도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집단	<i>M</i>	<i>SD</i>	<i>df</i>	<i>t</i> (유의확률)
실험 통제 정도	이해도	동시철회 집단(n=30)	4.47	.507	56	-1.259(.213)
		정서철회 집단(n=28)	4.64	.559		
	노력도	동시철회 집단(n=30)	4.30	.596	56	.731(.468)
		정서철회 집단(n=28)	4.18	.670		
	몰입도	동시철회 집단(n=30)	3.73	.740	56	-.444(.659)
		정서철회 집단(n=28)	3.82	.772		

또한 실험의 조작 확인, 즉 동시철회 집단이 부모의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정서적인 지지의 철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지의 철회를 함께 경험했는지, 또한 정서철회 집단이 시나리오를 읽은 후 정서적인 지지는 철회된다고 느끼되 경제적인 지지가 철회되지 않는다고 경험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두 집단 모두에게 시나리오를 읽은 후 ‘정서적 지원이 얼마나 감소할 것 같은지’와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감소할 것 같은지’에 대한 두 문항을 제시하고 0%(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100%(매우 많이 줄어들 것이다)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했다. 집단에 따른 실험 조작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집단에 따른 실험 조작에 대한 기술통계

		동시철회 집단	정서철회 집단	합계
정서적 지지	평균	68.33	64.82	66.64
	철회 정도	표준편차	27.533	27.225
경제적 지지	평균	84.33	49.25	67.40
	철회 정도	표준편차	18.834	29.892
N		30	28	58

실험 조작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8>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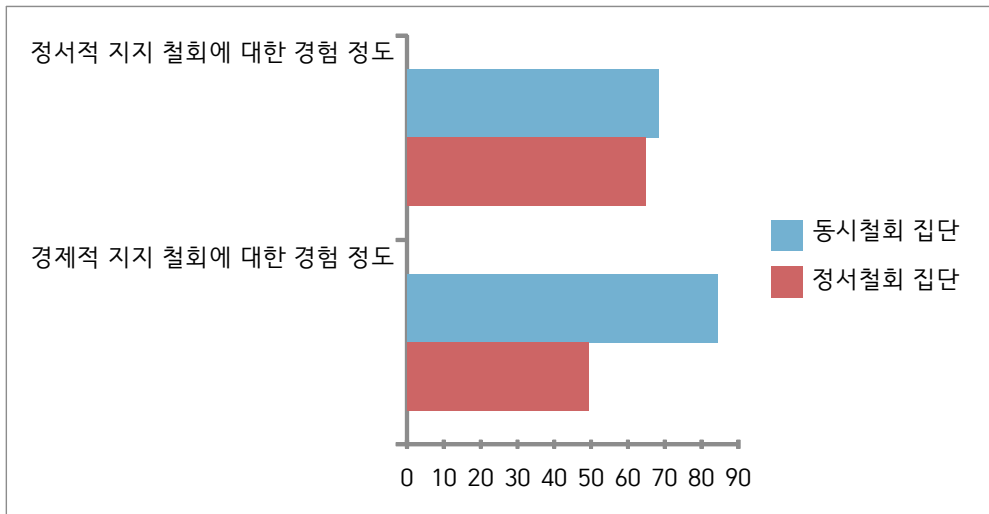
<표 8> 집단에 따른 실험 조작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정서적 지지	집단		178.623	1	178.623	.238
	오차		418878.774	56	749.621	
	합계		42157.397	57		
경제적 지지	집단		17825.963	1	17825.963	29.009***
	오차		34411.917	56	614.499	
	합계		52237.879	57		

*** $p < .001$

<표 6>와 같이 실험 통제 정도를 측정하는 이해도, 노력도, 몰입도 척도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p > .05$)으로 보아 두 집단에서 시행된 실험이 동질한 통제정도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표 8>에서 시나리오를 읽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어느 정도 철회된 것으로 경험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은데($F(1,56) = .238, p = .627$) 반해, 경제적 지지가 어느 정도 철회된 것으로 경험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유의수준 .0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56) = 29.009, p = .000$). 또한 동시철회 집단이 경제적 지지가 철회된 정도로 보고한 평균이

83.33(SD=18.834), 정서철회 집단이 보고한 경제적지지 철회 정도의 평균이 49.25(29.892)로 동시철회 집단이 시나리오를 통해 경제적 지지가 철회되는 경험을 더 높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적 지지 철회의 경험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경제적 지지 철회의 경험은 동시철회 집단이 확연히 더 높게 경험한 것으로 보아, 연구자극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피험자에게 다르게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집단에 따른 정서적·경제적 지지 철회에 대한 경험 정도를 평균값을 사용하여 비교하여 제시했다.



[그림 4] 집단에 따른 정서적·경제적 지지 철회에 대한 경험 평균 비교

3. 역기능적 진로사고

1) 역기능적 진로사고

본 연구는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철회되는 지지의 종류에 따라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둘 다 철회되는 상황을 지각할 경우 정서적 지지만 철회되는 상황을 지각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세운 연구가설 1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모의 위기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지의 동시 철회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 철회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보다 더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진로사고검사(CT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 처치 전 참여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정도 차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 전과 후, 총 2번을 실시하였다. 사전 진로사고검사 결과를 통제하여 사후 진로사고검사 결과를 집단 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사전 역기능적 진로사고 결과에 따라 교정된 사후 역기능적 진로사고 결과

		동시철회 집단	정서철회 집단	합계
진로사고검사 결과	평균	120.07	109.82	115.12
	표준편차	18.418	21.928	20.664
교정값	평균	117.527	112.543	115.035
	표준오차	1.628	1.686	1.165
N		30	28	58

교정된 사후 역기능적 진로사고 결과가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10>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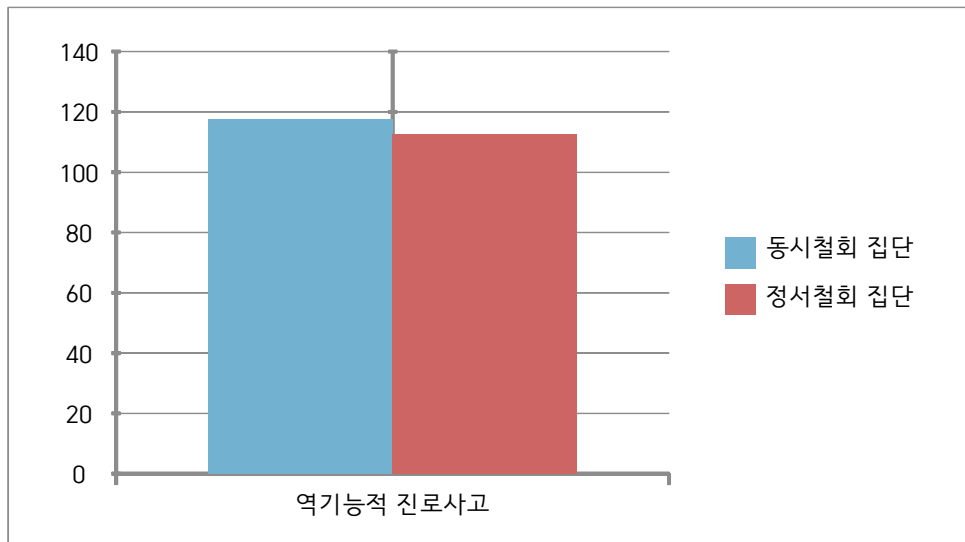
<표 10> 사후 역기능적 진로사고 결과에 따른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η^2
공분산	18492.360	1	18492.360		
(사전 역기능적 진로사고 점수)					
집단	352.083	1	352.083	4.475*	.075
오차	4327.614	55	78.684		
합계	24340.155	57			

* $p < .05$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F 통계값이 4.475, 유의확률이 .039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한 효과크기는 .075로, 사후 역기능적 진로사고 수준의 총 변이(variation) 중 7.5% 정도가 집단별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즉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모두 철회되었다고 경험한 집단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되었다고 경험한 집단보다 더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5] 집단에 따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수행불안 평균 비교

2)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요인

진로사고검사(CTI)는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결정 혼란은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정서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하며, 수행불안은 진로의사결정과정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불안으로 인한 무능력을 반영하고, 외적갈등은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하는 갈등에 관한 것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지지의 동시철회 상황과 정서적 지지만의 철회 상황이 각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사전 점수를 통제하여 공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혼란은 동시철회 집단은 평균 31.120(표준오차 .713), 정서철회 집단은 평균 29.264(표준오차 .739)로 F 통계값 3.221, 유의확률 .078을 보여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적갈등 역시 동시철회 집단은 평균 12.194(표준오차 .323), 정서철회 집단은 평균 11.363(표준오차 .334)로 F 통계값 3.193, 유의확률 .079을 보여 유의수준 .05에서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행불안 하위요인에서는 동시철회 집단은 평균 29.552(표준오차 .526), 정서철회 집단은 평균 27.944(표준오차 .545)로 F 통계값 4.506, 유의확률 .038을 보여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전 수행불안 점수에 따라 교정된 사후 수행불안 결과 분석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사전 수행불안 점수에 따라 교정된 사후 수행불안 결과

		동시철회 집단	정서철회 집단	합계
수행불안 점수	평균	29.77	27.71	28.78
	표준편차	4.523	5.805	5.238
교정값	평균	29.552	27.944	28.748
	표준오차	.526	.545	.378
N		30	28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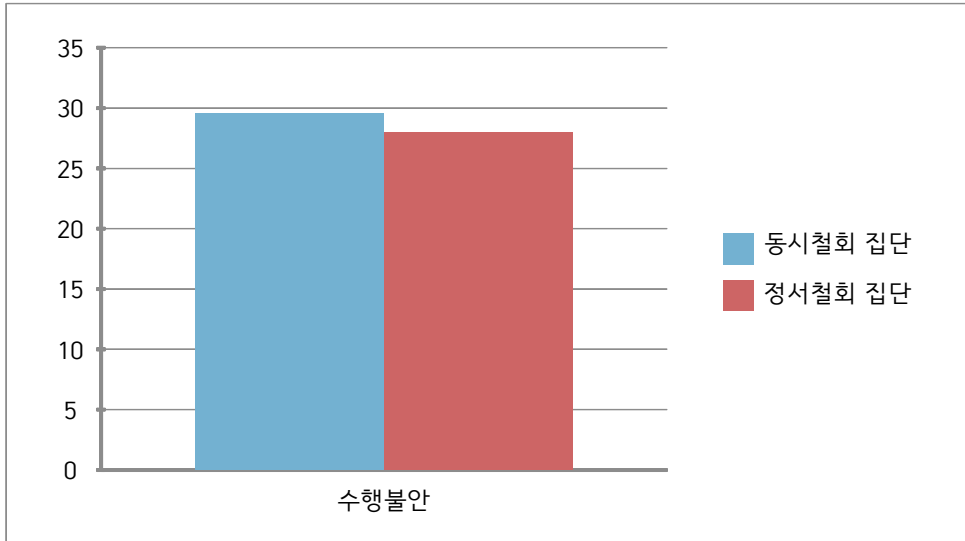
교정된 사후 수행불안 결과가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 사후 수행불안 결과에 따른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η^2
공분산	1046.982	1	1046.982		
(사전 수행불안 점수)					
집단	37.364	1	37.364	4.506*	.076
오차	456.099	55	8,293		
합계	1564.086	57			

* $p < .05$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요인 중 수행불안이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F 통계값이 4.506, 유의확률이 .038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수행불안에 대한 효과크기는 .076로, 사후 수행불안 수준의 총 변이(variation) 중 7.6% 정도가 집단별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모두 철회되었다고 경험한 집단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되었다고 경험한 집단보다 더 높은 수행불안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각각 사전 점수를 통제하였을 때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 점수의 평균값과 수행불안 점수의 평균값을 집단별로 비교하여 [그림 6]로 나타내었다.



[그림 6] 집단에 따른 수행불안 평균 비교

4. 주의편향

본 연구는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철회되는 지지의 종류에 따라 대학생의 인지적 정보처리, 특별히 주의편향에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둘 다 철회되는 상황을 지각하는 집단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되는 상황을 지각하는 집단보다 위협 자극에 대해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세운 연구가설 2는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 부모의 위기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지의 동시 철회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 철회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보다 더 높은 주의편향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아라(2013)이 개발한 진로관련 단어 자극을 사용하여 정서 스트룹(stroop)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색깔로 적혀진 단어를 보고, 단어의 의미가 아닌 색깔을 말하도록 요구 받았고, 모든 반응은 녹음되어 프라트(praat)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반응시간으로 재측정 되었다. 시간은 초단위로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지지 철회의 종류에 따라 색깔을 명명하는 반응시간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개인에 따라 색깔을 명명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단어당 발음 속도를 통제하였다. 또한 정서스트룹 과제가 신체적 반응이기 때문에 신체의 활성도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 정서상태를 보고하도록 하였던 SAM 척도 중에서 각성도 점수

를 통제하였으며, 시나리오의 몰입도 역시 피험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총 단어당 발음속도와 각성도, 그리고 몰입도를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단어당 발음속도, 각성도, 그리고 몰입도의 세 변수를 통제한 후의 집단별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위협적 단어에 대한 색깔 명명 속도는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지지 동시철회 집단의 경우 평균 .729초(표준오차 .020), 정서적 지지 철회 집단의 경우 평균 .655초(표준오차 .021)로 나타났다.

<표 13> 단어당 발음시간, 각성도, 몰입도에 따라 교정된 스트룹 반응시간

		동시철회 집단	정서철회 집단	합계
반응시간 (초)	평균	.701690	.685046	.693655
	표준편차	.135	.112	.127
교정값	평균	.729	.655	.692
	표준오차	.020	.021	.014
N		30	28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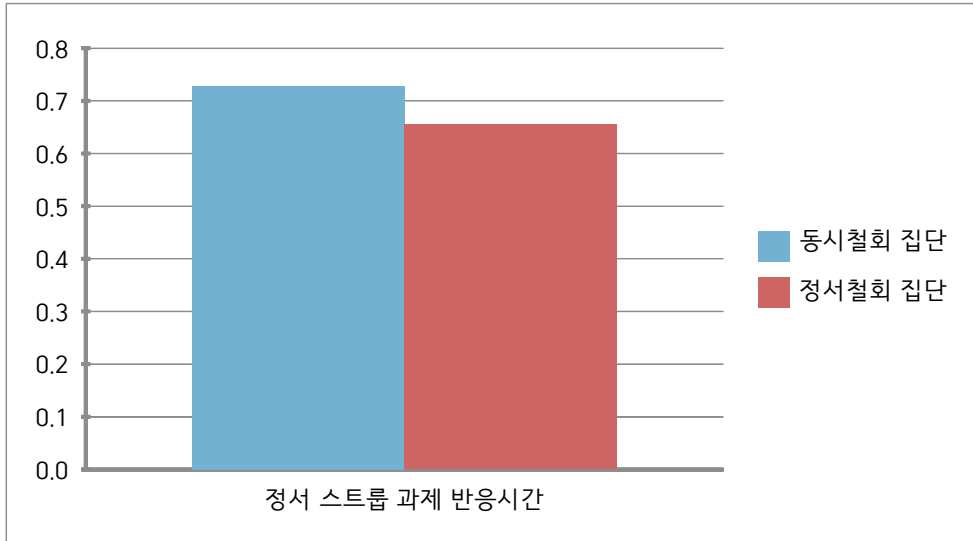
교정된 반응시간이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14>과 같다.

<표 14> 반응시간에 따른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공합	df	평균제공	F	η^2
공분산					
(단어당 발음속도)	.298	1	.298	6.180*	.104
(각성도)	.034	1	.034		
(몰입도)	.099	1	.099		
집단	.067	1	.067		
오차	.572	53	.011		
합계	.914	57			

* $p < .05$

위협적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F 통계값이 6.180, 유의확률이 .01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서스트룹 과제에 대한 효과크기는 .104로, 사후 정서스트룹 과제 수준의 총 변이(variation) 중 10.4% 정도가 집단별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즉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모두 철회되었다고 경험한 집단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되었다고 경험한 집단보다 정서 스트룹 과제 반응시간이 길었으며, 이는 동시철회 집단이 위협적 단어에 대해 더 많은 주의편향을, 정서철회 집단이 더 적은 주의편향을 나타냈음을 의미한다. 단어당 발음속도와 각성도, 몰입도를 통제하였을 때의 주의편향 지표로써 정서 스트룹 과제에 대한 반응시간의 평균값을 집단별로 비교하여 [그림 7]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7] 집단에 따른 정서 스트룹 과제 반응시간 평균 비교

V.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피험자가 시나리오에 이입하게 하는 실험방법을 통해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지가 철회되는 경험에 노출될 경우, 철회되는 지지의 종류에 따라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 관련 인지적 정보처리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제적 지지 철회가 대학생의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정서적 지지만 철회되었을 때와 경제적 지지가 함께 철회되었을 때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부모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진로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대학생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부모 위기 상황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철회되는 지지의 종류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지가 함께 동시에 철회되는 시나리오와 정서적 지지만이 철회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시나리오 제시 전 모든 참여자들에게 진로사고검사와 정서를 측정하는 SAM 척도에 반응하게 하여 실험 전 참여자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시나리오 제시 후 인지적 정보처리 중 주의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정서스트룹 과제와 실험 조작 확인 척도, 그리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사후 진로사고검사를 실시하여 처치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 분석시에는 측정된 사전 점수 및 개인 특성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사후 진로사고검사와 정서 스트룹 과제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정서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지를 철회 당한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이 정

서적 지지만 철회 당한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혼란과 외적갈등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행불안 점수에 있어서 경제적·정서적 지지 철회 집단이 정서적 지지 철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부모의 지지 철회가 대학생의 진로관련 정보처리, 특별히 주의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서스트룹 과제에서도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철회 당한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 당한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긴 반응시간을 보여, 위협적인 자극에 보다 더 주의를 배분하였음을 보였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인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역기능적 진로사고 결과에 대한 논의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 선택 능력과 진로선택 실행을 저해하기 때문에 진로상담에 있어 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내담자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주장에 따라(Young & Chen, 1999),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진로의사결정을 실제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이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여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다(최현영 & 서영석, 2005).

진로요소들과의 대인관계적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최근 중요시 되고 있고(Blustein, 2001; Schulthesis, 2003), 그 중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지 및 다차원적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의식의 성장과 태도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이정규, 2006)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변인으로 부모의 지지 철회를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지지가 동시에 철회된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된 상황을 지각한 대학생에 비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가설 1이었다. 그 결과,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정서적 지지만을 철회당한 경험을 한 대학생들에 비해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함께 철회당한 경험을 한 대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보여 경제적 지지를 철회당하는 것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철회 당한 집단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당한 집단에 비해 수행불안에 있어서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경제적 지지의 철회가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중 수행불안의 상승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수행불안 외에 의사결정혼란 하위요인과 외적갈등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의사결정혼란에서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 통계값 3.221이, 유의확률 .078, 이고, 외적갈등에서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 통계값 3.193이, 유의확률 .079이지만 두 하위요인 모두 효과크기 .055로 의사결정혼란과 외적갈등에서 사후 의사결정혼란과 외적갈등 수준의 총 변이(variation) 중 5.5% 정도가 집단별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효과크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Huck, 2008)에 의하면 효과크기 .055는 .01~.06에 포함되어 작은 수준에 속하지만, 실험 대상자의 수가 본 연구보다 많아져서 집단 간 차이를 통

계적으로 더 민감하게 볼 수 있을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주의편향 결과에 대한 논의

주의 편향은 자극에 대한 주의 할당 및 집중과, 처리를 위한 자원의 투입을 의미한다. 위협적인 자극을 만났을 때의 높은 주의편향은 자극에 과도한 주의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활동에 대한 자원 분배를 감소하게 하고(Mathews & MacLeod, 1985), 유사 자극에 의해 쉽게 각성되게 하며, 이후에 진행되는 정보처리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Williams et al., 1996). 특히 주의편향이 내재된 위험도식(danger schema)에 의해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매우 빠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Mogg et al., 1993; Williams et al., 1988), 이러한 주의자원 할당과 일련의 영향력이 개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일어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관련 단어자극을 사용한 정서 스트룹 과제를 사용하여 진로 정보에 관한 주의편향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철회당한 대학생 집단과, 부모 위기상황으로 인해 정서적 지지만 철회당한 대학생 집단 간에 인지적 정보처리 속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함께 철회당한 집단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당한 집단보다 더 긴 반응시간을 보였고, 이는 동시철회 집단이 단어자극의 색명명 과제에 있어 간섭을 더 받았으며, 단어의 의미로 제시되는 위협 자극에 주의를 더 배분함으로써 과제에 대한 인지적 정보 처리 속도가 늦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인 지지와 정서적인

지지가 함께 철회되는 것이 정서적인 지지만 철회되는 것보다 유의미하게 더 위협적으로 대학생에게 경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실제로 부모의 경제적 지지의 철회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위협적인 자극에 자동적으로 훨씬 더 많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위협적 자극에 대한 자동적 주의 편향은 경험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의 습득과 자신감을 줄이고(Davey et al., 1992),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혼란감을 경험하게 하며(Butler & Booth, 1991), 진로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사고들을 연이어 하게 만듦으로써 진로과제와 관련된 수행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Sarason, Sarason, Keefe, Hayes, & Sherin, 1986). 따라서 부모 위기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철회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진로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위협적 자극이 되는 부정적 정보에도 상관없이 입력하고, 처리하고, 인출하는 과정에 간섭을 덜 받아, 인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부모 위기상황 중 경제적 지지가 철회되는 상황이 자녀의 진로사고에 주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연구는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실험 변인으로 조작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험연구보다 현장연구의 형태로 많이 진행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연구는 연구문제와 관련이 없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 실험연구에 비해 변인들 간의 인과적인 속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김계현, 2000). 또한 실험 조작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시작 및 유지 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Garber & Hollon, 1991).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작을 통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변인들을 통제하여, 현장연구에 비해 내적 타당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의 실험 연구는 연구과정 및 결과로부터 가외 변인들의 오염을 줄이고, 관심 대상의 상담 개입 가능성과 그 효과성에 대한 확인(김은하, 2012)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입의 필요성 확인과 더불어 그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역시 부모 위기상황을 겪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상담 장면에서 개입되어야 할 진로 사고의 과정을 명확하게 증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 상담 장면에서 자주 보고되는 부모 위기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한 대학생과 정서적 지지만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한 대학생으로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부모의

위기상황 중 경제적 어려움에 갑작스럽게 노출될 때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부모의 경제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불일치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철회당한 대학생이 정서적 지지만 철회 당한 대학생보다 더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수행불안, 그리고 주의편향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 내담자가 부모 위기 상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할 경우 그 경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내담자에게 필요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처치의 영향력을 확인함에 있어 자기 보고식 설문 뿐만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써 실제 나타나는 인지적, 행동적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자기 보고식 질문에 대한 응답의 왜곡이나 편파적 반응의 가능성(이아라, 2013)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한 부모 위기로 인한 경제적 지지 철회 상황의 구현과 이를 통한 행동적 지표의 측정은 변인의 인과적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 대상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서울 및 경상북도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비율을 유사하게 하고 전공과 학년을 다양하게 하려는 시도들을 하였으나, 이러한 표집이 전체 대학생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 재학이라는 대상자의 특성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증명된 연구결과가 다른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표집을 통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로 부모의 위기로 인해 경제적 지지를 철회당하거나 정서적 지지를 철회당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 대학생의 반응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가상 시나리오 상황에서 처치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로 활용된 사례는 가상으로 제작된 사례이므로 실제 부모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의 경험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부모 위기로 인해 진로에 혼란을 겪은 대학생들을 인터뷰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시나리오가 잘 이해가 되며 몰입이 되는지에 대해 문항을 통해 질문함으로써 그 거리감을 좁히고 또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현재 가정 상황이나 부모와의 관계, 재정적인 지원 정도 등 사례마다 내포하고 있는 변인이 다르고 발생한 맥락이 다르므로 시나리오에 몰입하여 참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증명된 연구결과가 현상적으로도 보여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부모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지지를 철회 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의 지지 범주 네 가지(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중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지지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있어서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또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노미숙, 1999)는 연구는 다른 범주의 부모 지지와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적 지지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만 철회되는 상황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지지의 철회가 정서적 지지만 철회되는 것보다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관련 정보처리에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이를 보완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논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학생이 부모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진로 발달에 있어서 인지적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를 보호하거나 상쇄해 줄 수 있는 요인이나 상담적 개입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윤정 (1999).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자기표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 & 강혜원 (200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77-293.
- 고향자 & 김영아 (2003). 대학생 진로상담에서 인지적 정보처리접근의 유용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277-293.
- 권석만, 유성진, & 정지현 (2001). 걱정이 많은 사람의 인지적 특성: 위협평가와 위협대처에서의 인지적 편향과 파국적 사고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467-487.
- 김경주 (2010).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책방향**.
-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계현 & 문수정 (2002).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 서울대학교 대학생활 문화원. 보고서, 70.
- 김민우, 최준식, & 조양석 (2011). 고려대학교
얼굴표정모음집(KUFEC)과 의미미분법을 통한 정서차원
평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189-1211.
- 김수리 (2005). **진로관련 부모지지 척도 요인별 문항과 요인구조계수**.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현 (2005).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2012). **상담학연구에서 실험패러다임의 적용**. **상담학연구**,

13(5), 2119-2133.

- 김은희 (2001). **빈곤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 지도의 효과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충기 & 김제한 (1986). **청년 발달심리학**. 서울:세광출판사.
- 노미순 (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문각 & 김은진 (2000).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미진, 최인화, & 이재창 (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3(1), 125-146.
- 박선희 &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학교**, 6(1),
67-81.
- 박수길 (2000).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 & 박민주 (2007). **스트룹 아동 색상-단어검사 실시요강**.
서울: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 엄영순 & 최연실 (2009). 중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97-224.
- 오진미 (2004). 진로탐색 훈련이 대학생의 진로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19, 1-21, 덕성여자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 이경민 (2004).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9).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문화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지**, 8, 219-255.
- 이내은 (2003).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라 (2013). **진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회피 기반 처치가 한국 대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선 (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불안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2009). **진로 상담과 서비스: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가이던스.
- 이재창, 최인화, & 박미진 (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 이재창, 최인화, & 박미진(2003). 진로사고검사의 한국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29-550.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춘재, 오가실, & 정옥분 (1991). 사춘기 신체 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4(1), 89-102.
- 이형국 (2010). 진로상담: 인지적 정보처리접근 중심 대학생 진로발달 증진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1(2), 701-720.

- 이훈진 (2000).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의 사회적 추론: 맥락정보 사용과 귀인편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3), 439-451.
- 이희영 (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 장지선 (200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포부 결정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원 (2002).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애리 (2012). **Ego identity status and confirmation bias in career information search**.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문기 (2005).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정서정보에 따른 주의편향 효과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7(2),111-130.
- 최문기 (2005). 주의편향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정서 장애에 대한 정보처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17-238.
- 최인화 (2003). 대학생의 가족체계유형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7, 61-101.
- 최현영 & 서영석 (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71-684.
- 하승연 (2010).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주의 및 기억의 정보처리편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효정 (2012).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내적통제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특성불안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윤희 (2004).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2007). 한국인의 정서적 발달과업 탐색 :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발달학회**, 15(3), 163-189.
- 황은숙 (2012). 한부모가정의 생활실태와 지원확대 방안 연구. **한부모가정학**, 5(1), 59-78.
- 황은숙 (2013). 한부모가정 발생전후의 생활실태와 지원확대 방안 연구. **한부모가정학**, 1(1), 1-25.
- Bechara, A., Damasio, H., Damasio, A. R., & Lee, G. P. (1999). Different contributions of the human amygdala and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to decision-making. *The Journal of Neuroscience*, 19(13), 5473-5481.
- Bechara, Antoine, et al. (1997). Deciding advantageously before knowing the advantageous strategy. *Science*, 275(5304), 1293-1295.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Guilford, New York.
- Blustein, D. L. (2001). Extending the reach of vocational psychology: Toward an inclusive and integrative psychology of

- wor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2), 171-182.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
- Borders, D., & Akchadel, K. A. (1987). Self-beliefs and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 69-79.
- Borders, L. D., & Archadel, K. A. (1987). Self-beliefs and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2), 69-79.
- Brosschot, J. F. (2002). Cognitive emotional sensitization and somatic health complaint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3(2), 113-121.
- Brown, D., & Brooks, L. (1990). Introduction to career development: Origins, evolution, and current approach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1-12.
- Brown, D., & Brooks, L. (1991). *Career counseling techniques*. Boston: Allyn and Bacon.
- Butler, G., & Booth, R. G. (1991). *Developing psychological treatments for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 Clarke, R., Gelatt, H. B., & Levine, L. (1965). A Decision Making Paradigm for Local Guidance Research.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4(1), 40-51.
- Corbishley, M., & Yost, E. B. (1989). Assessment and Treatment Dysfunctional Cognitions in Career Counseling.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5(3), 20-26.

- Davey, G. C., Hampton, J., Farrell, J., & Davidson, S. (1992). Some characteristics of worrying: Evidence for worrying and anxiety as separate constru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2), 133-147.
- Dowd, N. E. (1995). Stigmatizing Single Parents. *Harv. Women's LJ, 18*, 19.
- Dryden, C. (1999). Being married, doing gender: *A critical analysis of gender relationships in marriage* (p. 132). London: Routledge.
- Ehlers, A., Margraf, J., Davies, S., & Roth, W. T. (1988). Selective processing of threat cues in subjects with panic attacks. *Cognition & Emotion, 2*(3), 201-219.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WW Norton & Company.
- Garber, J., & Hollon, S. D. (1991). What can specificity designs say about causality in psychopatholog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0*(1), 129.
- Goleman, D.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for character, health and lifelong achievement*.
- Hazan, C, & Shaver, P. 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Keller, K. E., Biggs, D. A., & Gysbers, N. C. (1982). Career counseling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The Personnel*

- and Guidance Journal*, 60(6), 367-371.
- Kray, L. J., & Galinsky, A. D. (2003). The debiasing effect of counterfactual mind-sets: Increasing the search for disconfirmatory information in group decis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1(1), 69-81.
- Krumboltz, J. D. (1990, March). Helping clients change dysfunctional career belief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Cincinnati, OH. vocational behavi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6, 440-475.
- Lang, P. J. (1980). *Behavioral treatment and bio-behavioral assessment: Computer applications*.
- LeDoux, J. E. (1996). *The emotional brain*. Touchstone, New York, 384.
- Lent, R. W., & Brown, S. D. (1996).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An overview.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4), 310-321.
-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5), 296-299.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a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1),

76-87.

- Lustig, D. C., & Strauser, D.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career though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1), 2-11.
- Mathews, A., & MacLeod, C. (1985). Selective processing of threat cues in anxiety stat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5), 563-569.
- Mathews, A., & MacLeod, C. (2002). Induced processing biases have causal effects on anxiety. *Cognition & Emotion*, *16*(3), 331-354.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3-31.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87). The Effects of Cognitive Restructuring and Decision Making Training on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6*(4), 171-174.
- Mogg, K., & Bradley, B. P. (1998).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of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9), 809-848.
- Mogg, K., Bradley, B. P., Millar, N., & White, J. (1995). A follow-up study of cognitive bias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8), 927-935.
- Mogg, K., Kentish, J., & Bradley, B. P. (1993). Effects of anxiety and awareness on colour-identification latencies for emotional word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6), 559-567.

- Neimeyer, R. A. (1988). Integrative directions in personal construct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1*(4), 283-297.
- Norman, D. A., & Bobrow, D. G. (1975). *On the role of active memory processes in perception and cognition*. Center for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sborn, A. G. (1999). *Diagnostic cerebral angiography*.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Ouimet, A. J., Gawronski, B., & Dozois, D. J. (2009). Cognitive vulnerability to anxiety: A review and an integrative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6), 459-470.
- Pitz, G. F., & Harren, V. A. (1980). An analysis of career decision mak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decision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320-346.
- Rounds, J. B., & Tracey, T. J. (1990). *From trait-and-factor to person-environment fit counseling: Theory and process*.
- Sampson, J. P.,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1), 67-74.
- Sampson, J. P.,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 Saunders, D. E. (1996). *Career thoughts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rason, I. G., Sarason, B. R., Keefe, D. E., Hayes, B. E., & Shearin, E. N. (1986). Cognitive interference: Situational determinants and traitlike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215.
- Schultheiss, D. E. P. (2003). A relational approach to career counseling: Theoretical integr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3), 301–310.
- Spokane, A. R. (1991). *Career interven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troop, J. R. (1935). Studies of interference in serial verbal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8*(6), 643.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 Williams, J. M. G., Mathews, A., & MacLeod, C. (1996). The emotional Stroop task and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20*(1), 3.
- Williams, J. M. G., Watts, F. N., MacLeod, C., & Mathews, A. (1988). *Cognitive psychology and emotional disorders*. John Wiley & Sons.
- Young, R. A., & Chen, C. P. (1999). Annual Review: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1998.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8*(2), 98–141.

[부록 1] 실험 참가자 모집 공고문

<실험참가자 모집>

실험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실험은 부모의 지원 감소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사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인지적 정보처리 과제, 심리적 독립과 진로사고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승인번호 - IRB No. 1404/001-011/ 승인날짜 - 2014.4.9)

- 참가 자격: 진로를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않은 대학생(휴학생 포함)
- 제외 기준: 선정기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외
- 소요 시간: 실험 참가 신청서 약 3분, 사전 설문지 작성 약 8분, 본 실험 약 30분
- 실험 장소: 서울대학교 교내 상담실/ 혹은 연구실
- 실험 날짜: 2014년 4월 14일 - 5월 30일 중 연구자와 사전 약속 후 가능한 시간 방문
- 실험 내용: 인지적 정보처리 과제 수행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사고에 대한 설문지 작성
- 실험 방법:
 - 1) 실험 참가 신청서 온라인 작성: 모집문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https://docs.google.com/forms/d/12rZiXHd207oI49TwY1yWB6XVuMkpNIBrCNC93JTr32Q/viewform>)
 - 2) 사전 설문지 온라인 작성(참여자 선정 후 링크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3)본 실험: 실험 장소에 방문, 컴퓨터로 제시되는 인지적 과제 수행 및 설문지 작성

**인적사항 자료는 오직 연락, 인구통계학적 분석자료로만 사용된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실험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으신 분 중 10%의 인원을 추첨으로 선발하여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본 실험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실험 후, 소정의 참여비용(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조민지
e-mail: 0000000@0000.000
H.P: 000-0000-0000

[부록 2] 부모의 위기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지지가 동시에 철회된 상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page1) 나는 막 병원에 도착했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얼마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있다며 힘들어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도착한 우리 아버지는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최대한 빨리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뇌기능 이상 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숨이 턱턱 막힐만큼 뛰어온 나는 정신없이 엄마부터 찾았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들어가신 수술실 앞 의자에 머리를 무릎에 박고 앉아계신다. 얼굴을 보니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부어서 반쯤은 안 보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page2) 나는 놀란 엄마 대신 보호자로 의사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선생님은 아버지의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술부위가 위험한 곳이라 새로운 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수술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일단 수술에 동의는 했는데 머리속이 캄캄해진다. 그만큼 수술비가 우리 집에 있었나..?엄마 말로는 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는데...내 식비랑 차비할만큼의 용돈은 받고 있지만, 내 대학등록금은 지금껏 다 내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녔었다. 이제껏 우리 가족아버지 월급으로 먹고는 살았지만 아직도 갚아야할 대출이며, 우리 교육비까지 여유는 없었는데, 막상 수술비 널만한 목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해진다. 다음 달부터는 큰 맘먹고 영어학원 다니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복잡한 마음에 바닥만 쳐다보게 된다.

(page3) 나는 훌쩍거리는 동생들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리 아버지...수술이 잘 되야 할텐데. 제발... 아침에 바쁘게 나오느라 아버지 얼굴도 보질 못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지... 우리 집에서 내게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던 아버지. 생각해보면 나 고3때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 않아서 수시를 써야할지 정시를 써야할지 고민하며 앉아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어깨를 툭툭 치시며 괜찮으니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씀해주시면 웬지 모르게 다시 노력해봐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는 했었다. 전공과 진로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무슨 고민을 하나고 말해보라고 하시며 가만히 들어주시고, 천천히 고민해도 괜찮다고, 잘될거라고 말씀해주시곤 했었는데... 그런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누워계신다. 내 평생의 지붕으로 든든히 계셔주실 것 같던 나의 아버지가 누워계신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것 같다. 눈물이 또다시 맺힌다.

[부록 3] 부모의 위기로 인해 정서적 지지가 철회된 상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page1) 나는 막 병원에 도착했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얼마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있다며 힘들어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도착한 우리 아버지는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최대한 빨리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뇌기능 이상 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숨이 턱턱 막힐만큼 뛰어난 나는 정신없이 엄마부터 찾았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들어가신 수술실 앞 의자에 머리를 무릎에 박고 앉아계신다. 얼굴을 보니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부어서 반쯤은 안 보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page2) 나는 놀란 엄마 대신 보호자로 의사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선생님은 아버지의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술부위가 위험한 곳이라 새로운 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수술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연락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했고, 아버지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된다고 했다. 평소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던 아버지 회사 부하직원분도 도착하셔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도중 다치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되어 병원비만큼 보상금도 충분히 나오고, 몇 개월간 정상적으로 월급이 나오면서, 유급휴직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병간호 잘 해드리라고, 깨어나시면 꼭 연락달라는 당부를 하고 가신다. 어머니도 회사에 며칠간 휴가를 내시겠다고 전화하러 가셨다.

(page3) 나는 훌쩍거리며 동생들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리 아버지...수술이 잘 되야 할텐데. 제발... 아침에 바쁘게 나오느라 아버지 얼굴도 보질 못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지... 우리 집에서 내게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던 아버지. 생각해보면 나 고3때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 않아서 수시를 써야할지 정시를 써야할지 고민하며 앉아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어깨를 툭툭 치시며 괜찮으니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씀해주시면 왠지 모르게 다시 노력해봐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는 했었다. 전공과 진로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무슨 고민을 하나고 말해보라고 하시며 가만히 들어주시고, 천천히 고민해도 괜찮다고, 잘될거라고 말씀해주시곤 했었는데... 그런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누워계신다. 내 평생의 지붕으로 든든히 계셔주실 것 같던 나의 아버지가 누워계신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것 같다. 눈물이 또다시 맺힌다.

[부록 4] 진로사고검사(CTI)

<5단계. 진로사고 설문지>

다음은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그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번호에 0표를하여주십시오.

문 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나는 어떠한 전공이나 직업에도 흥미가 없다.	1	2	3	4
2 거의 모든 직업정보는 그 직업의 좋은 면만을보여준다.	1	2	3	4
3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작조차 할 수 없다.	1	2	3	4
4 나는 최선의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이다.	1	2	3	4
5 나는 나에게 맞는 전공이나 직업을 잘 생각해 낼 수 없다.	1	2	3	4
6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의 전공이나 직업선택을 더욱 어렵게 한다.	1	2	3	4
7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은 세울 수가 없다.	1	2	3	4
8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나는 너무 불안해서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1	2	3	4
9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1	2	3	4
10 나에게서 정말 의미있는 직업이 별로 없다.	1	2	3	4
11 나는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정에서 너무 실망을 해서 지금은 잊어버리고만 싶다.	1	2	3	4
12 나는 내가 흥미있는 전공이나 직업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1	2	3	4
13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전공이나 직업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1	2	3	4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 한다
14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듣는 진 로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은 늘 혼란스 럽다.	1	2	3	4
15 내가 고려 중인 전공이나 직업이 필요 로 하는 요구사항이 나의 경우에는 해 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1	2	3	4
16 나는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으나, 매번 만족스러운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1	2	3	4
17 내 관심사가 자주 변한다.	1	2	3	4
18 직업세계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 문에 그것에 대해 배우는 일은 의미가 없다.	1	2	3	4
19 만일 전공이나 직업을 바꾸게 된다면 나는 실패자처럼 느껴질 것이다.	1	2	3	4
20 직업 선택은 너무 복잡한 일이기 때문 에 나는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1	2	3	4
21 나는 직업이란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22 나는 나에게 맞는 여러 개의 전공이나 직업 중에서 가장 알맞은 하나를 결정 할 수가 없다.	1	2	3	4
23 나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항 상 그것을 누군가가 방해한다.	1	2	3	4
24 상담자나 교사들이 나의 진로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25 여러 가지 진로검사를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전 공이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26 나는 직업에 대한 생각들이 자주 변한 다.	1	2	3	4
27 나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전공이 나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을 것이다.	1	2	3	4
28 나는 내 자신과 직업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혼란스럽고 좌절하 게 된다.	1	2	3	4
29 알아봐야 할 직업은 많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추려내는 일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	1	2	3	4
30 나에게 맞는 직업을 몇 가지로 추릴 수는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 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1	2	3	4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 한다
31 직업을 결정하는 일도 어렵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1	2	3	4
32 나에게 맞는 완벽한 직업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33 나는 누군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물을 때면 당황된다.	1	2	3	4
34 나는 내 전공 분야에 대한 직업정보를 어떻게 찾아야할지 모르겠다.	1	2	3	4
35 나는 내게 맞는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대한 걱정이 많다.	1	2	3	4
36 나는 최선의 결정을 할 만큼 직업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할 것이다.	1	2	3	4
37 나이 때문에 나의 직업 선택이 제한을 받는다.	1	2	3	4
38 다양한 전공이나 직업 중에서 하나를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1	2	3	4
39 내 전공 분야에서 좋은 직업을 구하는 것은 운에 달렸다.	1	2	3	4
40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과정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1	2	3	4
41 나는 부모, 형제., 자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	1	2	3	4
42 나는 직업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1	2	3	4
43 나는 내가 아직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렵다.	1	2	3	4
44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나는 결코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45 선호하는 직업들은 많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직업은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4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1	2	3	4
47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1	2	3	4
48 내가 내린 진로 결정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1	2	3	4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부모위기상황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독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명 : 조민지 (서울대학교, 석사)

이 연구는 부모위기상황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독립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연구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 (조민지, 010-4806-2884)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위기상황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독립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60명의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는 연구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귀하는 실험을 실시하기 전 연구자로부터 두 가지 심리검사지(진로사고검

사(CTI), 심리적 독립 척도(PSI))를 직접 혹은 메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송부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실험에서는 연구자의 간단한 지시사항과 함께 인지적 과제를 약 7분정도 진행한 후,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 받습니다. 이후 유사한 인지적 과제와 진로사고검사, 그리고 간단한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하시게 되면 연구자의 디브리핑과 함께 실험은 종료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전 심리검사 실시- 1일 약 10분 내외, 본 실험- 1일 약 30분 내외로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시나리오에는 부모의 지지가 철회되는 것을 상상하게 부정적 자극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가 검사 및 인지적 과제를 하시는 동안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심할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부모위기상황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독립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조민지) (010-4806-2884)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조민지 전화번호: 010-4806-2884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_____	_____	_____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_____	_____	_____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_____	_____	_____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 본 실험의 목적은 부모위기상황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독립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 여러분은 실험하기 전에 상자에서 뽑은 A,B 2개의 집단 중 한 가지 집단에 배정되었으며, **A 그룹**에 배정되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부모에게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진로와 관련된 사고내용들을 체크하고 주의편향과 관련한 인지적 과제를 시행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B 그룹에 배정되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부모에게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진로와 관련된 사고내용들을 체크하고 주의편향과 관련한 인지적 과제를 시행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 본 연구 외에 진로에 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진로 관련 정보의 처리, 진로발달,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인지적 영역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선택 및 실행을 저해하기 때문에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Young & Chen, 1999).
- 또한 대학생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중요변인 중 하나는 부모인데, 이는 부모와의 애착, 심리적 독립, 지지 등이 자녀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 진로수행, 진로탐색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대학생 시기에 다수 경험하게 되는 부모의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변화는 자녀의 경제와 정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진로사고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자녀와 진로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독립정도가 높을수록 낮은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보고되며, 진로사고라는 인지적 변인

과 더불어 전반적인 발달과업의 측면인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의 확립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주장되고 있습니다(고향자&강혜원, 2003).

-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위기상황에 따른 지지철 회의 종류가 각기 대학생의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심리적 독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대학생들의 기능적인 진로탐색을 돕고자 합니다. .
- 혹시 실험이 끝나고 불편한 점이 남아있다면 연구자에게 말씀해주시요. 또한, 위에 제시된 정보와 연구자의 실험종료안내보다 연구에 참여함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 내의 상담센터에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대학생활문화원, 02) 880-5501)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험을 안내한 연구자에게 질문해주시요.

Abstract

Effect of Withdrawal of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on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for College Students

Cho, Min Ji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effect of withdrawal of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on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for college students. It has been confirmed in previous

studies that supports from parents significantly affect process career choice and decision of their child. In the case of financial support, however, the literature shows discrepant results. To fill this gap, I conducted an experiment to see the effect of withdrawal of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on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of college students. I gave an experiment group a scenario in which both economic and emotional supports were withdrawn due to crisis of parents and a control group the other one in which only emotional support was withdrawn, and checked wheth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score of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peed. I score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by career thought inventory (CTI) and information-processing speed by attention bias level in emotional stroop task.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 group has a higher score in both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and attentional bias level than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has merit in that it clearly shed lights on economic supports from parents as a significant determinant to career thinking of college students through an experiment with a fine-grained scenario. The result is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implications in reducing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of college students in the practice of career counseling.

keywords: Career counseling,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attention bias, support from parents,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withdrawal of support

Student Number: 2012-21343